
권 두 언

글로벌 선도 식품·영양 분야 학회로 발돋움하는 학회창립 50주년이 되길 바라며

운영위원장 이 유 현 (수원대 교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고, 이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백신이라는 한 줄기 희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학회는 국제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올해 학회창립 50주년 학술대회를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1971년 7월 창립한 이래 식품과 영양에 관한 연구와 국민영양보건의 향상,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고, 올해는 “대한민국의 영양보건증진 및 학술문화발전에 기여한 반세기, 글로벌 선도 식품·영양 분야 학회로 발돋움하는 또 다른 반세기의 초석이 되는 해”라는 창립 50주년 비전 하에 학회의 역할을 새로이 제시하고 실행해 가는 시작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 분야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보건에 기여함과 동시에 식품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학회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올해 4월 산업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Tailored to Fit: Food & Nutrition in New Era”라는 주제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국내외 연구자들과 식품산업체가 어우러진 정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회의 ‘식품산업과 영양’은 산·학·연·관 간의 교류를 위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는 산업지입니다. 제26권 1호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우리’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식품산업계의 변화와 향후 방향성에 관한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으며, ‘식품창업 성공기’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의 흥미로운 수기를 소개합니다. 본 산업지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저자분들과 편집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